

수입차에 밀리고 해외서 고전... 車업계 위기

올 생산량 131만대... 전년도보다 7.5% 줄어

수출도 8.5% 감소 ... 수입차 선호도는 커져

국내 자동차업계가 위기다. 내수 시장에서는 수입차 공세에 밀리고 해외에서도 고전하고 있는데다, 생산마저 감소하고 있다.

◇생산·수출 내리막=14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완성차 생산량은 35만4156대로, 1년 전 같은 기간(38만2566대)에 견줘 7.4%(2만8410대) 감소했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올 4월까지 생산량도 131만6966대에 머무르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 142만3537대 보다 7.5%(10만6571대) 줄었다.

지난해 한국의 자동차 생산대수는 411만4913대, 1년 사이(2016년 422만8509대) 2.7% 감소했다. 한국은 세계 10대 자동차 생산국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생산이 감소한 국가다.

수출도 감소했다. 지난해 국내 자동차 수출은 22만273대로 1년 전 23만9393대에 비해 8.0%(1만9120대) 줄었고 올 1~4월 수출량(79만4125대)도 전년도 같은 기간(86만7565대)보다 8.5%(7만3440대) 감소했다.

작년 한 해 국산차 수출량도 253만194대로, 전년(262만1715대) 대비 3.5% 줄며

2013년부터 감소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이미 올해 '국내 자동차산업 전망보고서'를 통해 수출은 전년 대비 1.5% 감소한 257만대, 생산은 전년보다 1.4% 줄어든 410만대가 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수입차 선호도 커지고=수입 승용차 공세도 거세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가 발표한 올들어 4월까지 수입차 신규등록대수는 9만3328대로, 전년 동기 7만5017대보다 24.4% 증가했다. 지난해만 보더라도 2만5923대가 판매된 1년 전 4월(2만5110대)보다 29.3%가 늘었다. 수입 승용차 판매량은 ▲2014년 19만6359대 ▲2015년 24만3900대 ▲2016년 22만5279대 ▲2017년 23만3088대 등으로 가파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수입차 판매량이 수입차 선호도에

힘입어 처음으로 25만대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내 자동차 산업의 위기는 수입차 선호 확대, 해외 경쟁 심화, 연화 약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게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자동차업종 체감 경기도 사상 최저 수준에서 맴돌고 있다.

자동차업의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D)는 4월 기준으로 64로 한 달 전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9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동차 업황 BSI 평균은 93, 최저치는 65였다.

자동차 산업이 한국 제조업의 주력산업으로 전후방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쌍용차 렉스턴

쌍용차 전남 도서지역 고객 무상점검 서비스

쌍용차가 전남 도서지역 고객을 위한 '2018 상반기 도서지역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

서비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인천 옹진군의 대청도, 소청도, 백령도와 신안 자은도(14일), 흑산도(15·16일), 비금도(17일), 도초도(17일), 안좌도, 팔금도, 암태도(이상 18일), 울릉도 등 전국 11개 도서지역에서 대형 상용차를 제외한 쌍용차 모든 차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행사기간 ▲소모성 부품 점검 및 교환 서비스 ▲각종 오일류 및 부동액, 워셔액 점검·보충 ▲타이어·에어컨 점검 ▲ 실내 살균·탈취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객이 월할 경우 오토매니저가 방문하여 차량 판매상담도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쌍용차 홈페이지(www.smotor.com)를 참고하거나 고객센터(080-500-5582)로 문의하면 된다.

/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한국GM, 돌아선 소비자 마음 잡는다

한국 지엠(GM)이 추락한 브랜드 이미지가 회복에 나섰다. 내년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하는 경영 정상화계획과 신차·상품성 강화 모델 출시 방안 등을 제시하며 국내 소비자들 마음을 되돌리려는 구상이다.

한국지엠은 군산공장 폐쇄 발표 이후 '철수설'이 돌면서 국내 자동차 판매량이 1년 전 절반 수준까지 급감하는 등 브랜드 인지도가 추락한 상태다.

14일 한국지엠에 따르면 지엠은 최근 2종의 글로벌 신차 개발 생산을 뒷받침할 총 28억 달러의 신규투자 방안과 내년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하는 경영 정상화 계획 등을 마련했다.

지엠은 경영정상화 계획에 따라 ▲한국 및 주요 수출 시장을 겨냥한 신형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제품의 디자인·개발·생산 ▲한국 및 주요 수출 시장을 겨냥한 신형 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CUV) 제품 생산 ▲차세대 글로벌 차량을 위한 3기통 다운사이징 가솔린 엔진의 개발·생산 등을 국내에서 이행할 계획이다.

'뉴 스파크' 이달 출시, '이쿼닉스' 연내 선보여 28억달러 신규 투자·내년 흑자전환 계획 마련



뉴 스파크

한국지엠은 또 향후 5년간 총 15종의 신차 및 상품성 강화 모델을 국내에 출시한

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한국지엠은 가장 먼저 경차 스파크의 부

분변경(페이스리프트) 모델인 '뉴 스파크'를 이달 내놓는다.

뉴 스파크는 지난 2015년 '더 넥스트 스파크' 이후 3년여 만에 새로 나오는 것으로, 내·외관 디자인을 바꿔 상품성을 개선했다.

한국지엠은 뉴 스파크 외에도 신모델인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인 이쿼닉스와 중형세단 말리부의 부분변경 모델이 연내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100일간 세보레 대리점을 찾은 고객을 대상으로 매일 1명을 추첨해 스파크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마케팅 프로그램을 개시하는 한편,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세보레의 브랜드 정신을 담은 '네버 기브 업(Never Give Up) 캠페인도 선보인다.

다음달에는 한 달간 전국 세보레 서비스센터에서 하절기 안전운전을 위해 엔진오일, 오일필터, 에어클리너, 냉각수와 타이어 상태 등을 점검하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혼다 '어코드' 10세대 모델 출시

혼다의 대표 세단 '어코드' 10세대 모델이 출시됐다.

6년 만에 완전변경(풀체인지)된 신형 어코드는 저중심 설계를 적용하면서 강인한 느낌을 주는 보닛과 지붕에서 트렁크까지 완만하게 연결되는 패스트백 디자인으로 차별화를 꾀했다.

전고(1450mm)도 기존 모델보다 15mm 낮아졌고 전폭(1860mm)은 10mm, 휠베이스는 55mm 각각 늘어났다. 어코드는 1.5터보, 2.0터보 스포츠, 하이브리드 2종 등 4가지 모델로 선택 폭을 넓혔다.

2.0터보 스포츠 모델은 혼다가 독자

개발한 10단 자동변속기가 적용됐고 1.5터보 모델은 1.5ℓ 직분사 브레이크 터보 엔진과 무단자동변속기의 조합에 동급 최고 수준의 연비(복합연비 13.9km/ℓ)를 강점으로 내세운다.

판매가격은 ▲1.5터보 3640만원 ▲2.0터보 스포츠 4290만원 ▲하이브리드 EX-L 4240만원 ▲하이브리드 투어링(Touring) 4540만원이다.

어코드 하이브리드는 복합연비 18.9km/ℓ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82g/km로 동급 최수준이다.

/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자동차보험 가입에 어려움을 겪는 운전자들이 보다 쉽게 보험사를 골라 가입할 수 있게 됐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0일부터 보험개발원과 함께 자동차보험 가입시 소비자가 여러 보험사를 상대로 가입 가능 여부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내 차보험 찾기' 서비스에 들어갔다.

보험개발원 '내 차보험 찾기' 홈페이지(myca.kidi.or.kr)나 금감원 금융소비자

소비자가 직접 차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금감원, '내 차보험 찾기' 서비스 시행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이용 가능하다.

일단 개인용(10인승 이하 개인 소유)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고, 업무용·영업용은 나중에 확대를 검토한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자동차보험 경신은 만기일 전 30~5영업일 사이, 신규는 책임 개시일 5영업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는 보험료가 비싼 '공동인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기에 앞서 보험사를

을 상대로 가입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공동인수의 경우 여러 보험사가 위험을 나눠서 저 보험료가 15% 정도 높다.

내 차보험 찾기 서비스는 보험사의 인수 거절 여부가 정해지기에 앞서 가입자가 최대 11개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자신의 가입 여부와 보험료를 알아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전기자동차 시대...' 포럼

한국수입자동차협회는 오는 17일 서울 테크노 호텔에서 '모빌리티의 미래, 전기차(EV) 시대 도래하나'를 주제로 3회 자동차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1회 '디젤 자동차의 미래', 2회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비전'에 이어 전기자동차의 경제성과 전기차 시장 안착 및 확대를 위한 과제, BMW

와 닛산 등 주요 브랜드의 전기차 전략과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 등을 살펴본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 관계자는 "국내 수입자동차 업계 및 소비자들 사이에서 글로벌 자동차 시장을 이해하고 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물건

-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역) 토지:912,50㎡(276평) 건물: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48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1,349㎡(408평) 건물:1,350,03㎡(408.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61억 8차선대로변
- ★ [건물] 광주 북구 일곡동 토지:7,662,4㎡(2,317.8평) 건물:6,864,61㎡(2076.5평) 지상3층 매매가:95억 아파트밀집지역,복합사우나건물
- ★ [건물] 광주 서구 능성동 (준주거지역) 토지:3,104,6㎡(939.1평) 건물:11,543,18㎡(3491.8평) 지상9층 매매가:100억 대로변, 지하철역세권, 전시효과 최상, 수익률최상
- ★ [건물]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근린상업지역) 토지:2,485,20㎡(751.77평) 건물:5,802,89㎡(1755.37평) 지상3층 매매가:85억 선운지구 상권밀집지역 (보종금 6억, 월수입 3천)

병원

- ★ [의료시설]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신기리 토지:8,630㎡(2610.56평) 건물:6299,19㎡(1905.50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100억 화순전대병원인근에 위치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619,62㎡(187.4평) 건물:1,458,86㎡(441.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30억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근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514,40㎡(155.6평) 건물:2,143,08㎡(648.2평) 지하1층 지상5층 매매가: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 ★ [의료시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토지:580,40㎡(175.57평) 건물:2,889,86㎡(874.18평) 지하2층 지상6층 매매가:37억 상권밀집지역에 위치, 주변 아파트밀집지역

토지

- ★ [토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토지:3,891㎡(1177평) 매매가:35억3천1백만
- ★ [토지]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토지:1948㎡(589.27평) 매매가:29억4천5백만 신양파크호텔에서 무등파크호텔가는 도로의 카페거리에 위치 투자가치최상

분양

제주 조천읍 스위스마을(타운하우스) 총 66세대 중 3단지4단지 31세대 분양 중 (1단지 2단지 분양완료) 타입 : 36평형, 45평형 2018.7월 입주예정 신개념 수익형 타운하우스



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 010-4234-8640